

유치원생도 안전체험관 교육 받는다

올 하반기부터... 전주학생교육문화관, 하반기 교육 본격

전주학생교육문화관(관장 김형대)이 하반기 안전체험관 교육에 본격 돌입했다.

특히 하반기부터는 안전체험관 운영 대상을 유치원생까지 확대했다.

안전체험관 교육은 지역사회 내 안전 문화 확산 및 연령별 안전교육 기회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앞서 상반기에는 관내 초·중·고·대학생 501명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지진대피 △화재대피 △완강기 탈출 △화재진압 등 5개 과정을 운영했다.

참여 학생들은 "안전사고 대비 방법의 중요성을 알 수 있었고, 실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체험 위주로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어 좋았다"며 "심폐소생술 및 AED 사용법 교육을 통해 실제로 사람을 살릴 수 있을 것 같아 유익하고 뿌듯했다"는 소감을 밝혔다.

하반기 안전체험관 교육은 6월 중 2차에 걸쳐 정기 신청을 받았으며, 추후 교육을 희망하는 학교 및 기관에서는 우선으로 신청 가능하다.

김형대 관장은 "안전체험관 교육 대상 확대를 통해 공교육이 사회의 변화하는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미래 사회의 주역인 학생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학생교육문화관이 하반기 안전체험관 교육에 본격 돌입했다. (사진=전주학생교육문화관 제공)



2025년 초·중등 영어수업전문가 수업 나눔 활동. (사진=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제공)

도내 영어수업 전문성 확산

전북교육청, 초·중등 영어수업전문가 수업 나눔 지난해 국외 연수 참여교사 30명 수업 공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5년 초·중등 영어수업전문가 수업 나눔 활동을 마무리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진행된 수업 나눔은 교사들이 직접 기획하고, 실천한 영어 수업을 공개했다. 수업 나눔은 국외 연수 성과를 현장과 공유하고, 교사 간 자발적인 수업 나눔 문화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

수업 나눔에 참여한 교사들은 지난해 초·중등 영어수업전문가 국외 연수에 함께 한 초·중등교사 30명(초등 14명, 중등 16명)이다.

특히 이번 수업 나눔에서는 학생 참여 중심 영어 수업 모델 제시, 영어 교수 전략 공유, 국외 연수의 수업 실습 내용을 반영한 수업 설계 등 현장의 실천적 사례 등을 소개했다.

수업 나눔 결과물인 각 교사의 수업 지도안, 수업 자료 등은 전북교육청 누리집 전북의국어교육에 탑재돼 향후 영어교육 정책 수립 및 연수 프로그램 개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수업 나눔을 참관한 한 교사는 "수업자의 국외연수를 통해 얻은 수업 기법 및 경험을 알게 돼 의미있는 시간이었다"며 "수업 참관 이후 국외 연수 참여 의지가 생겼고, 수업자처럼 좋은 영어수업을 구성해 실천해보고 싶다"는 소감을 밝혔다.

문형심 창의인재교육과장은 "수업 나눔은 교사 주도의 수업 공유 문화가 어떻게 학교 현장의 영어 수업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보여준 사례"라며 "앞으로도 교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며 학생 중심의 영어수업 혁신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2025년 ESG

실무자 중심 역량강화 연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3일 전주비전대학교 비전컨벤션홀에서 '2025년 실무자 중심 ESG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교육기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ESG 개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각 기관의 여건에 맞는 실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서 잔남 ESG협회 공동대표이자 서남해안포럼 ESG 정책위원장은 '공직자가 알아야 할 ESG'를 주제로 정책 기획과 현장 적용에 실질적 도움을 주었다.

이와 함께 참여자들은 다양한 사례 공유를 통해 각 기관의 상황에 맞는 실천 아이디어를 모색하고, ESG 정책 실행의 방향성을 재점검하는 기회를 가졌다.

김지유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이번 연수가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천 역량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ESG 가치를 내재화하고 실천할 수 있는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해 각종 연수와 정책 지원 등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학교는 지난 2일 서울 엘타워 그랜드홀에서 제로웹, 에티버스, VANTIQ와 'AI 기반 디지털 돌봄 플랫폼' 구축을 위한 4자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 (사진=전주대학교 제공)

전주대, AI 기반 디지털 돌봄 혁신 선도

제로웹 등과 4자 협약 체결... 실시간 디지털 돌봄 모델 실증·공동 연구개발 등 협력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제로웹, 에티버스, VANTIQ와 'AI 기반 디지털 돌봄 플랫폼' 구축을 위한 4자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 2일 서울 엘타워 그랜드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전주대학교 이혜원 산학부총장 및 사회혁신학과 오단아 교수와 제로웹 이재현 대표이사, 에티버스 김준성 전무, VANTIQ Miguel Nuach CRO와 이형근 한국지사장 등 각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상호 협력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실시간 디지털 돌봄 서비스 모델 실증 및 공동 연구개발 △AI 기반 데이터 분석 및 디지털트윈 구축 및 공동 추진 △산학연 교육 및 청년 인재 양성 프로그램 추진 △AI 분야 정부 정책 사업 및 지자체 연계 사업 공동 대응 △글로벌 시장 진출 및 공동 브랜드 구축 및 마케팅 활동 전개 등 AI와 관련한 다양한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전주대와 에티버스 및 벤티크는 앞서 올 4월에 AI 기반 지역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3자 업무 협약을 체결, AI 기술을 통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지역사회 안전 체계 구축을 위해 힘

썼다. 이번 4자 협약에는 홀몸노인이나 혼자 지내는 가족을 위한 디지털 케어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IT 기업인 제로웹이 새롭게 참여해 시대적 흐름인 AI 기반 디지털 돌봄 관련 연구와 인재 양성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혜원 산학부총장은 "이번 4자 협약은 대학이 단순한 교육기관을 넘어, 지역과 국가의 디지털 전환을 이끄는 실질적 플랫폼으로 나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결실"이라며 "AI를 기반으로 대학이 지역과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좋은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파의 채용 약정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으로의 취업이 연계돼 실질적인 진로 연계형 교육이 이뤄진다.

계약정원제 사업의 주요 교육 분야는 △인공지능 △첨단무기 △우주항공 △반도체 디스플레이 △차세대 통신 △이차전지 △드론 △첨단바이오 △스마트팩토리 등이다.

이번 사업에는 총 30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며, 이 중 20여원은 교육 지원비, 10여원은 산학 프로젝트 지원비로 편성된다. /장은성 기자



전주기전대, 대만과 손잡고 치유로컬 관광 새 지평 연다

전주기전대, 대만과 손잡고 치유로컬 관광 새 지평 연다

전주기전대가 대만과 손잡고 치유로컬 관광사업의 새 지평을 열었다.

전주기전대 RISE 사업단(단장 조덕현)에 따르면 지난 2일 치유농업과가 대만 타이중시 용정농회와 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3일에는 무봉구농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치유농업 분야의 공동발전을 목적으로 교류사업 대응과 농촌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협력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고령친화 지역관광 모델을 구축하려는 목표를 담고 있다.

특히 대만의 '농촌 그린케어' 정책은 교류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한국 농촌 고령자 복지 정책의 참고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대만의 '그린케어 프로젝트'는 △그린디자인(녹색 식생활) △그린테라피(원예·치유치료) △그린동행(청년·농촌 정주) 등 4대 핵심 축을 바탕으로 고령자의 건강 증진과 지역 활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정책은 국가 차원의 재정지원 아래 진행되며, 그린케어 스테이션을 중심으로 실행된다.

한편 전주기전대는 향후 대만과 공동연구, 전문가 교류, 치유농업 콘텐츠 공동개발 등을 통해 로컬 관광의 미래 모델을 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첨단 전략기술 인재 '계약정원제' 신입생 모집

25명 오늘까지... 중소·중견기업 전문인력 부족 문제 해소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첨단 전략기술 인재 양성 과정인 '계약정원제' 신입생 모집에 나섰다. 모집기간은 4일까지며, 인원은 총 25명이다.

계약정원제 활용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의 전문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산업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실무형 석사급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정부지원 프로그램으로, 전북대는 향후 2년간 첨단 전략기술 분야에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모집 대상은 학사 학위 취득자 또는 2025년 8월 졸업 예정자 등 학사 학위와 동등한 학력을 소지자다. 특히 공과대학, 농업생명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등 전략기술 분야 전공자다.

학생들에게는 등록금 전액 지원은 물론, 월 80만 원의 학업장려금, 해외 단기연수 참여 기회, 산학협력 프로젝트 참여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이 외에도 과정 수료 후에는 참여기업

으로, 사정환 자동차용합기술원 본부장, 문남수 국립군산대 교수, 기성범 KT 팀장, 손봉준 타타대우모빌리티 부 등이 참여해 기술과 정책, 산업생태계 측면에서의 협력 방안을 심도 깊게 논의했다.

또, 이번 포럼에서는 공동의장 이·취임식도 함께 진행되어, 김방신 타타대우모빌리티 교문 등이 이임하고, 김태성 타타대우모빌리티대표, 강희성 호원대 총장이 신입 공동의장으로 취임했다. /군산=김민호 기자

국립군산대, '제45회 전북 자동차 춘계포럼' 개최

국립군산대학교 RISE사업단은 지난 2일 대학본부 4층 대회의실에서 (사)전북자동차포럼, 군산대학교, (사)전북산학융합원과 '제45회 전북 자동차 춘계포럼 및 공동의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3일 밝혔다.

군산시 강일준 시장을 비롯해 지자체, 대학, 기업, 연구기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AI 기반 모

빌리티 개발 현황 △AI 혁신이 이끄는 미래 모빌리티 기술개발 동향과 지역 전략 △인공지능 기반 배터리 검사 솔루션 기술동향 등 주제 발표 △산·학·연이 참여하는 지정토론 및 종합토론 등이 이어졌다.

특히, AI기술을 접목한 미래모빌리티 기술개발 동향 주제로 진행된 지정토론에서는 호원대 김용환 교수를 좌장

전북 학생 3팀, 공공데이터 대회 입상

상산고 '어머나'·NONE 각각 최우수·우수상 수상
인공지능고 'ChatGPT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우수상

'제7회 교육 공공데이터 분석 활용 대회'에 전북에서 7개 팀이 참가해 최우수상(상산고) 1팀, 우수상(상산고, 인공지능고) 2팀 등 총 3팀이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에 따르면 이 대회는 교육 분야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목적으로 2019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전국적으로 총 310편을 응모, 이 중 61편이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최우수상을 받은 '어머나' 팀은 지역별 폐교 현황을 조사하고, 폐교의 주요 원인 분석 및 해결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폐교의 우수 활용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을 살리기 위한 폐교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우수상을 받은 'NONE' 팀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오토바이 설치와 사고 발생률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보안 방안(CCTV 설치, 오토바이 및 도로표지 정비, 스피커 등 노후시설 정비 등)를 제시했다.

'ChatGPT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팀은 청소년의 독서실태와 전국 초·중·고 학교 도서관 사서교사(사서) 현황을 분석해 'AI사서: 도서 추천 모델'을 제작했다.

한편 수상자는 교육 공공데이터 분석·활용대회 누리집(https://edss.moe.go.kr)에 탑재, 교육 분야 연구에 활용될 예정이다.

채신영 정책기획과장은 "학생들이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사회문제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경험을 통해 미래 역량을 키워가길 바란다"며 "내년에는 더 많은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수학교사 문항 제작 역량 키운다

전북교육청, 오늘 2차 연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4일 창조나래 5회의실에서 '수학교사 문항 제작 역량 강화' 2차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연수는 수학적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을 평가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평가 문항 제작 능력을 배양하고, 맞춤형 문항 제작을 통한 수학 학력 신장을 목적으로 기획됐다.

특히 1학기에 제작된 평가 문항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학생들의 실제 학습 수준과 변화된 교육 환경에 적합한 문항을 개발하는 데 중점을 뒀다.

연수는 교사들이 직접 만든 문항을 재구성하고, 동료들과 활발하게 피드백을 주고받는 실습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와 연계된 문항 개발 역량을 키우고,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형심 창의인재교육과장은 "이번 연수는 학생들의 성장을 위한 평가의 본질을 깊이 고민하고, 실제 교육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최적의 문항을 만들어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리 학생들이 수학을 통해 미래 사회의 핵심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